

---

---

## **종평위 집행위원회 회의**

---

---

2010. 7. 21.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 목 차

I . 2010 종교차별신고센터 접수현황	.....	1		
II . 개신교에 의한 불교폄훼 대응의 건				
1. 개요	.....	5		
2. 대응활동	.....	6		
3. 대구경북 3대 문화권 기반조성사업 요약	.....	7		
4. 한기총 일간지 광고 개요	.....	10		
5. 대응방안 모색	.....	10		
III . 종평위 하반기 주요사업(요약)		.....	11	
참고 : 불교폄훼영상 법률자문			.....	13

## I. 2010종교차별신고센터 접수현황

- 2010년도 1월부터 6월말까지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종교차별신고센터에 접수된 종교편향, 불교폄훼 신고접수(제보)건은 공식적인 것만 48건임. (이는 월평균 8건)
- 2010년도만 살펴보더라도 서울, 수원, 군포, 성남, 진해, 강진, 고양, 인천, 대구 등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되고 있음
- 신고접수된 내용의 경중에 따라 단순사항은 조사\_검토후 결과를 회신하는 등 일반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안은 팀회의를 대응방침을 모색하여 해당기관에 개선요구, 징계요청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2010년 주요대응활동으로
  - 스포츠영역 : SBS 해설위원 발언, 국가대표 기도세례모니 등
  - 기업체 : 한진택배, 현대자동차 네비게이션 ‘모젠’ 등이 있었으며, 적극적으로 대응조치 하였다.
- 지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종교차별(불교폄훼)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0년 하반기에는 종교차별신고센터를 광역거점지역에 구축\_추진하고 있다.
- 2010년 종교차별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번호	접수건명	접수일	접수내용	해당기관
1	김해시 시민교양강좌	10/1/13	아나운서처럼 말아지 말고 목사처럼 말하라 강의제목이 특정종교를 알리는 것 같음	
2	KBS	10/1/15	방송프로그램제목: 크리스마스파크콘서트	KBS
3	지하철 스크린도어	10/1/18	시문구에 "하나님"이라는 표현 2009년 1월 5일자로 나온 디카詩"5호 예수록 시인: 윤진화	서울시 문화예술과
4	저출산문제해결 운동본부	10/1/18	저출산대책운동본부의 지자체 마련 시종교협의회 회장은 목사가 임명되어야 함 (김포시)	김포보건소 보건복지 가족부
5	성탄트리 설치	10/1/19	성북구 미아4거리 성탄트리 설치 연말연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설치	성북구 문화체육과
6	인터넷 배너	10/1/19	포털 및 인터넷신문에서 크리스마스와 부처님 오신 날의 배너 비교	포털 및 주요언론사
7	이효선 광명시장	10/1/20	광명여성회관의 교육과정 개강식에서 친기독교적 발언 (십일조 강요, 기독교용어 남발)	광명시청
8	금성출판사	10/1/21	에밀래종제작중 "어린 아이를 산채로 넣어라"는 스님의 지시 불교에 혐오감 부여	금성출판사 문화체육 관광부
9	화성휴게소	10/1/25	성탄절이 지났어도 전직원이 산타복장으로 근무	도로공사 화성시청
10	MBC 보석비빔밥	10/2/1	드라마 출연자 빌언중 - "내가 앞으로 불교를 믿나 봐라"	MBC
11	안동 지역명 변경	10/2/1	불교지명변경지명의 무분별한 변경은 전통문화와 정체성 소멸 가능	행정안전부 지자체
12	문화재청의 불교문화재 해설	10/2/2	문화재청 홈페이지의 불교문화재 설명 중 왜곡 및 부적절한 표형	문화재청
13	진해시 중앙동 주민센터 민원봉투	10/2/3	진해시 중앙동 동사무소의 민원봉투에 교회 홍보	동사무소
14	성남시립도서관의 종교편향	10/2/3	성남시립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 기독교, 천주교의 카데고라는 있지만 불교는 없고 그 외 종교가 있음	성남시
15	장흥군 행정의 부당성	10/2/9	농어촌재가 복지시설 사업 진척에 따른 장흥군의 부당한 행정 처리 건의	장흥군
16	방송 중 불교폄훼	10/2/9	KBS 2 방송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발언	KBS
17	강남교회 김성광 목사	10/2/15	강남교회 김성광 목사의 설교에서 불교폄훼 발언	강남교회
18	씨티은행 광고	10/2/16	중앙일보 2월 16일 씨티은행 광고의 불교폄훼	씨티은행
19	이윤진 간증집회 교회순방 용인시의원	10/2/19	* 이명박 대통령 동생 이윤진 선교사의 용인시 일대의 간증집회에 정치인들 참석 * 용인시 의원의 교회순방 및 종교 개종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20	SBS 해설위원 발언	10/2/24	공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해설위원의 발언	SBS 방통심의위

21	강남구개포동 구립유치원	10/3/2	유치원에서의 현금 및 식사기도	시청, 구청 동사무소
22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10/3/4	3월4일(목)강북교육장제5강의실에서 실시한정지처분자2차교육에서 선교동영상으로교육	국토해양부 도로교통공사
23	현대자동차 네비게이션모젠	10/3/5	네비게이션(모젠)에 사찰이름검색시 묘지표시	모젠
24	KBS 수상한 삼형 제	10/3/8	드라마 내용 중 불교폄훼	KBS
25	KBS라디오 풀류마을	10/3/10	흑인영가"콤바야" 노래내용중"오주여오소서"라는내용 방송중'상달고사'설명이 특정종교의 기념일로종교면향인지에대한의견	KBS
27	EBS	10/3/10	교회강연세미나개시물부착 -청소년비전세미나	EBS
26	수원 망포중학교	10/3/11	교회강연세미나개시물부착 -청소년비전세미나	수원 망포중학교
27	방송에서의 선교	10/3/23	방송에서 특정종교 상징 액세서리 착용	KBS / SBS
28	백영고등학교	10/3/29	교회에서 매주 금요일 신앙교육진행	교육청/ 교과부
29	행정안전부 박보영목사 초청기도	10/4/6	4월7일부활절예배 행정안전부내2층에서목사초청예배진행	행안부/ 문체부
30	중학교 봉사활동	10/4/7	충북진천의보중학교봉사활동을 인근교회에서진행	해당학교 /교육청
31	서경방송	10/4/8	지역케이블방송에서기독교방송편성 /불교방송은편성되지않음	방송사/ 한국케이블 TV방송협회
32	국정교과서	10/4/12	국정교과서에서"사랑방손님과어머니"의 내용중기도하는내용삽입	교과부
33	국회의원 발언	10/4/19	289회임시국회국방부장관질의증 부적절한발언 -"중이제머리못깎는다."	강성동의원 한나라당
34	인천터미널역	10/4/26	인천터미널지하철역의출구정보에 인천순복음교회표시파다 -각출구마다표시	인천지하철 공사
35	보림출판사	10/4/29	"사윗감을찾아나선두더지"라는 우화에서불교비하적인내용	보림출판사
36	59포병대대	10/4/30	종교행사에서타종교인에불편함을종용 하며기독교강요	상급 부대
37	고양시장 후보선정	10/5/2	한나라당고양시장후보선정에서 불자인강현석시장을후보에서제외하려는 기독교의원(백성운,김영선)의움직임	한나라당
38	백지영의 끝장토론	10/5/6	TVN의"백지영의끝장토론"에서 조영환을인코리아대표의부적절한발언	조영환 TVN
39	목동제자교회	10/5/7	목동제자교회담임목사의국제선센터 대상으로 저주기도	제자교회
40	서울도시철도공사	10/5/18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지하철5~6호선) 역사내현수막설치불가	서울도시 철도공사

41	동대입구역	10/5/19	역과인근종교단체와자매결연하여 역사내선교행사지원및진행	지하철공사
42	인천 승덕여고	10/5/20	국정공휴일인부처님오신날에 학생들을등교시켜수업과자율학습진행	승덕여고 인천교육청 감시과 이호근
43	야후	10/6/1	포털싸이트야후에서추천컨텐츠중 "스님들이저지른충격범죄들"을 추천컨텐츠첫번째로노출	야후코리아 고객센터
44	군포시 수리사	10/6/9	수리사불사관련공무원의감사원과 검찰로부터종교편향적인조사를받음	감사원 검찰청
45	노원구청의 종교편향	10/6/10	노원구기독교연합주관의자전거타기 대회에노원구청의자전거대여	노원구청
46	강진경찰서장	10/6/16	배영철강진경찰서장의 종교편향행위및특정범죄자비호	경찰청 강진경찰서
47	이명박정부의 종교편향인사행정	10/6/21	이명박정부에서공기업사장들을 기독교인과장로로교체 주요언론사사장들의목사사장임명 전국여행지도에서사찰누락	
48	MBC라디오 최유라조영남의 라디오시대	10/6/29	6월27일일요일방송4시30분경 축구해설가정모씨인터뷰중발언 "하나님이꼴을허용안했기때문에..."	방통위 / MBC
49	국립대 선교대회	10/7/7	전국대학교수선교연합회회장이선희 서울산업대학교 제25회전국대학교수선교대회 국립대에서진행은종교중립위배	국과부/ 산업대학교
50	MBC 라디오	10/7/9	북한인들에게남한소식을들려주는내용 청취자가만든방송으로 한반도에서의기독교역사전달	방통위 / MBC
51	시립합창단	10/7/20	시립합창단의개인적이용과 단원선발에있어서종교편향(기독인우대)	행안부/ 지자체

## II. 개신교에 의한 불교폄훼 대응의 건

### 1. 개요

- 팔공산 역사문화공원조성사업(부인사 초조대장경 복원간행 및 국제관 광선원 개발사업 등)은 대구시를 중심으로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대구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유치와 전통문화 보존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임.
- 이에 불교세가 강한 대구지역에 대구기독교총연합회(이하 대기총)을 중심으로 정부 및 지자체에 지속적인 압박을 통하여 사업 백지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음.
- 대기총의 활동을 살펴보면
  - 대기총 대표단 대구시장 항의방문(4. 7)
  - ‘국고지원금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4. 29. 서문교회)
  - 불교폄훼 동영상제작\_홈페이지 게재, 유포 (5. )
  - 대기총 문화체육관광부 항의방문, 유인촌장관 면담(6. 4)
  - 제4회 영·호남 한마음 성시화대회 개최(6. 10. 계명대학교)
- 유인촌장관 면담내용 기사화  
“불교계 템플스테이 사업 재조정하겠다”(6. 17. 국민일보 26면)
- 대기총 계획활동 기사화  
“대기총, 법적대응나선다\_공사금지가처분 검토”(6. 22. 국민일보 26면)
- 대구시 팔공산 불교테마공원 조성사업 재검토(7. 13. 국민일보 29면)
- 대기총 집회 예정(8. 6. 대구실내체육관)

### ○ 대기총에서 제작한 불교폄훼 동영상의 주요내용

- ‘지장보살은 별의 신으로 성경에서는 계명성이라고 말하는데 곧 사탄이다’
- ‘1992년 동화사에서 세계최대 단독 석불상인 통일대불이 세워지게 된다. 우상이 창궐한 그 결과는 참으로 참혹했다. 1995년 상인동 가스폭발사고, 2003년 대구지하철참사, 대구경제의 쇠락, 교회의 분열, 인구의 감소, 2003년 이혼률 전국 최고를 기록, 강력범죄의 증가’
- 이 땅의 사탄 송배지로 세워진 동화사
-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팔공산이 엄청난 우상숭배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 2. 대응활동

### ○ 대기총에 대한 대응은

- 대기총 유포 동영상 확보(6. 4)
- 동영상 및 대기총활동 관련 종교차별신고센터 실무팀 회의(6. 7)
- 대기총 동영상 관련 범률검토\_법무팀 자문(6. 10 ~ 14)
- 종무간담회 보고(6. 21)
- 종평위, 범대위, 동화사 간 1차 간담회 개최(6. 24. 동화사)
- KCRP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보고(6. 25 서울)
- 대구경북 5개교구본사 주지회의 브리핑(7. 5 대구)
- 종교편향·불교폄훼 대응을 위한 확대간담회 개최(7. 7 동화사)
  - : 말사 주지스님등 80여명 참석
  - : 2008년 범불교도대회(대구) 이후 남은 재정 2,600만원 확보중.
  - : 8월중 종교차별신고센터 구축, 상근자 확보 / 법적대응 적극검토
- 종교지도자협의회 실행위원회 안건상정 예정(7. 21)
- 종교지도자협의회 운영위원회 항의예정(7. 23)

### 3. 대구경북 3대문화권 기반조성사업 요약

#### 가. 사업개요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명	총사업비	'10국비	부처별	비고
계	8개사업 20,007 대구 1개 2지구 948 경북 6개 12지구 19,059	20,007	250	3개	
대구	역사문화공원 조성 달성토성역사문화공원 팔공 역사문화공원	948 330 618	22.1		
경북	10개 시·군 6개사업	19,059			
안동·봉화	유림문화공원 조성	7,500			
안동·영주	한국문화테마파크	3,500			
고령·성주	가야국 역사루트 개발	2,000			
경주외3	신화랑 풍류체험밸트	3,000			
상주	낙동강 이야기나라	1,559			
군위	삼국유사가온누리 조성	1,500			
상주	국립 낙동강생물자원관	907		환경부	
봉화	국립 백두대간고산수목원	2,300	396	산림청	국비100% (기추진)
영주·예천	국립 백두대간테라피단지	3,266			

## **나. 템플스테이 관광자원화 사업(국제 관광선원 조성)**

- 1) 사업 비 : 110억원(국비 50, 시비 50, 민자 10)
- 2) 사업기간 : 2009 ~ 2011년
- 3) 위치 : 동화사 경내
- 4) 주요사업
  - 선(禪)체험관 조성 : 통일대불 지하공간( $2,314\text{m}^2$ )
    - 국제 선문화관, 경판체험관, 고행체험관, 대장경 밀레니엄관
  - 선(禪)수련원 조성 : 통일대불 동편 계곡
    - 명상센터, 수련관
- 5) 기대효과 : 한국의 주요 관광상품인 Temple Stay 사업을 통하여 외국 관광객 유치 활성화
- 현재 전국 108개 사찰 운영 (운영비 등 연간 100억 정도(국비)) 지원

## **다. 팔공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 1) 3대 문화권사업 : 신라, 유교, 가야 등 대구·경북 중심의 문화권 개발사업
- 2) 사업기간 : 2010 ~ 2015년
- 3) 사업 비 : 618억원(국·시비 50%)
- 4) 위치 : 동구 신무동 일원 (부인사 맞은편)
- 5) 주요사업
  - 대장경 전시·재연마당 - 초조대장경 전시관, 디지털 장경각 등

- 대장경 체험 · 놀이마당 - 대장경체험장, 약선음식체험장, 목공예 조각공원

## **라. 초조대장경 천년기념사업**

### 1) 행사배경과 의미

- 2011년 부안사에 소장되었던 고려대장경 초조본 간행이 천년이 되는 해
- 동아시아 문화의 정수인 고려대장경 Milenium을 기념
- 경상남도, 해인사와 연계 추진

### 2) 사업기간 : 2010 ~2014년

### 3) 사업비 : 95억원 (국·시비 50%)

### 4) 주요사업

- 사전행사(2010년) : 승시, 순례길 걷기, 다큐멘터리 제작
- 본행사(2011년) : 이운행사, 복원간행(영인사업), 팔관회 재연 등

### 5) 추진경과

- '07. 4. 24 \_이어령 前문화부장관 제안 / 제24차 한국예총전국대회(대구)
- '08. 12. \_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국가과제로 선정
- 2011 한국방문의 해 주요행사 선정  
-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고려대장경 천년기념사업

#### 4. 한기총 일간지 광고 개요

-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한국장로회총연합회,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 한국교회언론회, 민족복음화부흥협의회 5개단체가 지난 7월 14일자 동아, 국민 등 다수의 신문에서 ‘종교계는 국민혈세로 종단운영 행위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하단광고를 게재함.
  - 지난해 11월 4일에 교회언론회 명의의 하단광고<별첨>를 게재한 사

- 광고에 명기된 단체 중 한국장로회총연합회,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 등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원단체로 확인됨.

#### 5. 대기총 및 한기총 일간지 광고건 대응방안 모색

- 대기총 대응
    - 동영상 법적대응 예정 / 종교차별신고센터 개설준비 / 대기총 대응
  - 중앙신도회\_종교화합위원회 성명서 발표(필요시 종평위 동시발표)
  - 종지협 운영위 회의(23일)\_한기총 해명요구/ 관련단체 제명요구/  
호소문 발표

- KCRP 호소문 제안
- 향후 범대위, 종단협 등 2단계 대응 준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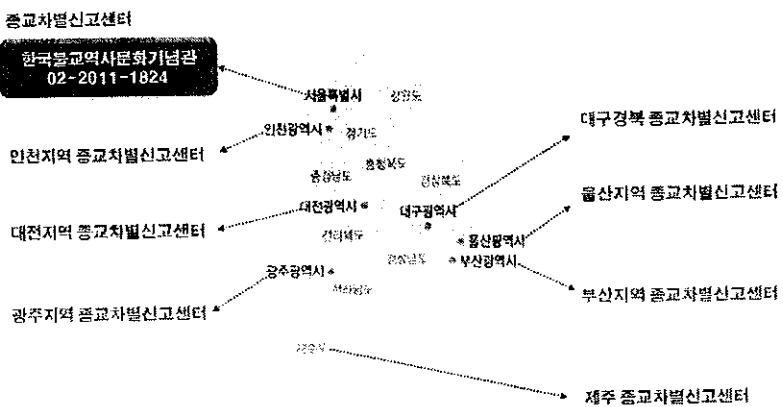
### III. 종평위 하반기 주요사업[요약]

#### 가. 일상사업

- 종평위 범대위 통합적인 운영
- 신고접수\_조사\_대응\_결과처리\_보고서작성 : 종교차별신고센터 운용(전화, 우편, 메일 등)  
: 사례목록정리, 사례분석(회의), 대응메뉴얼제작
- 정보수집\_조사\_대응\_결과처리\_보고서작성 : 뉴스클리핑, 종교평화 모니터링 운용  
: 뉴스클리핑취합, 관련단위(개인) 배포

#### 나. 조직·홍보사업

- 종교차별신고센터 광역화작업 (지역별 상황에 맞춰 교구중심으로 구축)  
: 지역별간담회 / 신고센터구축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광주, 부산, 제주>



- 종교평화 모니터요원 관리  
: 2기 15명 / 보고서취합\_요약, 분석(6월~12월) / 모니터요원 평가연수(12월)
- 종교평화기자단 운영  
: 1기 7명 / 월1~2회 기획평가, 편집회의진행 / 팀블로그 운영 / 홍보외연확대

- 범대위 홈페이지, 카페 운영관리  
    : 정기업데이트 ( <http://www.bumbulgyo.or.kr> / <http://cafe.daum.net/budvoice> )
- 종평위 집행위원회 회의 : 분기별 개최 (3/4, 4/4)

## **다. 교육사업**

- 불교대학, 도심사찰특강 진행 : 대전불교대학, 광주불교문화대학, 밀양불교대학 등 다수 확정
- 광역권 교육사업은 종교차별신고센터 광역화작업과 연계
- 강사진육성 : 강사단 구축, 내부강사단 역량강화

## **라. 정책사업**

- 범불교대회 2주년 기념 초청 강연회 : 학교종교자유(곽노현, 류상태, 김상곤 등)
- 학교종교자유 확대 간담회 : 강연회 이후
- 포교종책연찬회 : 포교연구실(교리연구 및 매뉴얼제작), 사회복지재단 공동

## **마. 연대사업**

## 참고> 법률자문

### 1. 사실관계

사단법인 대구기독교총연합회에서는 2010. 5. 24.경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주소 ([http://cccd.pe.kr/bbs/board.php?bo\\_table=sub\\_04\\_01&wr\\_id=35](http://cccd.pe.kr/bbs/board.php?bo_table=sub_04_01&wr_id=35))에 “불교태마공원조성 영적도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현재까지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의 주된 내용은 ‘지장보살은 별의 신으로서 성경에서는 계명성 곧 사탄이다.’, ‘1992년 동화사에 세계최대 단독 석불상인 통일대불이 세워지게 된다....우상이 창궐한 그 결과는 참으로 참혹했다. 1995년 상인동 가스폭발사고,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대구경제의 쇄락, 교회의 분열, 인구의 감소, 2003년 이혼률 전국 최고를 기록, 강력범죄의 증가’, ‘이 땅의 사탄 승배지로 세워진 동화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팔공산이 엄청난 우상숭배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에 대한 일체의 법률적 쟁점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 2. 관련 법령 검토

#### 가. 형사상 명예훼손죄 성립여부

일반적으로 종교간의 전도(포교)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런 일들은 대부분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천국, 불신지옥’, ‘부처는 사탄’이라는 문구는 피해의 구체적인 대상이 불교신자 내지는 비기독교 신자이므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동영상은 대구 동화사라는 구체적인 사찰이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공연성은 인터넷에 게재된 것만으로도 이미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위에 적시한 표현들이 사실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판례는 사실과 의견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사 중의 어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가 의견의 진술인가를 가리기 위하여는 당해 표현의 문언과 함께 그 기사 전체의 취지,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과의 연관하에서 당해 표현이 갖는 의미를 살펴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그 표현이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판례는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의견개진에 불과하므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동영상의 주된 내용은 ‘대구 동화사라는 사찰이 팔공산에 존재하고 동화사 청동대불의 조성으로 인하여 대구경제의 몰락, 가스폭발사고, 대구지하철 참사, 이혼율 증가 등의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내용이 단순한 의견개진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입증가능한 사실로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사건으로는 사실은 개관적으로 명백하고 입증가능한 것이어야 하는데 위의 표현들은 과도한 감정적 정서를 자극하는 언사에 불과한 것으로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 나. 민사상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50조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대구기독교총연합회(이하 ‘대기총’)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는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의 한계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을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것인데, 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그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공표가 이루 어진 범위의 광협, 그 표현 방법 등 그 비판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해손되거나 해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서 선교의 자유에 대한 한계의 일옹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사건으로는 위의 동영상은 선교의 자유를 넘어선 과도한 선교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법행위는 성립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그 손해범위의 특성이 문제될 것인데 일반적으로 정신적 손해배상금액은 2천 만원을 산정합니다.

#### 다. 동영상게제금지가처분

현재 대기총의 홈페이지에서 위 문제동영상을 계속 게제하여서 타인이 이를 살포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동영상의 게제 자체가 불법이므로 가처분을 하여서 동영상을 상영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처분 인용이 나온다면 위 가처분을 결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간접강제로서 금 얼마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조전혁의원의 예 처럼 가처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1일당 금 1천만원을 부과하는 조치)

#### 라.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①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마. 모욕죄

위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형사상 모욕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대기총의 동영상은 동화사의 외부적 명예를 심각하게 해손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 3. 관련문제

## 가. 소송의 주체

소송을 진행한다고 할 경우에 소송의 주체는 동화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나. 소송과정에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

소송을 한다고 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가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결정하여야 할 것은 형사상 고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형사상 고소를 할 경우에 기소가 되지 않거나 무죄판결이 나온다면 정치적으로 비난에 처할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민사상 소를 제기한다고 할 경우에 고려하여야 할 것은 손해배상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즉, 피해금액을 금 1억원 정도로 과대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대기총의 위법성을 확인받는 차원에서 금1원만을 청구할지 아니면 통상적인 위자료 금액 청구인 2천만원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 소송대리인 문제

소송대리인으로 누가 선임이 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 문제는 종교의 자유의 한계에 대한 중요한 문제이므로 종자연에서 소송대리인을 대규모로 추천받아서 소송을 대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강의석 군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으로 50여명의 변호사가 참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종단 변호사인 정석원변호사가 선임이 되어서 종단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일 개인의 차원으로 동화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라고 판단됩니

다.

#### 라. 동영상의 배포

사건으로는 위 동영상 중 ‘대구 동화사라는 사찰이 팔공산에 존재하고 동화사 청동 대불의 조성으로 인하여 대구경제의 몰락, 가스폭발사고, 대구지하철 참사, 이혼율 증가 등의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오는 부분까지를 편집하여서 온라인 상에 대규모로 유통하여서 개신교인들의 편협한 사고를 온라인상(다음 아고라, 개인 블로그, 카페 등)에 널리 알리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